

제목: 인일 총동창회 홈페이지의 인연

작성자: 7최재화

나는 늦깎이 인생이다.

내가 홈페이지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2009년 5월!

친구네 결혼식에 가서 반가운 동기동창들을 만나고 와서, 그 인사말을 쓰게 된 것이 시초이다. 학교 홈페이지 초등학생처럼 몇 자 안되는 글귀인데 띄어쓰기도 제대로 못하고, “안녕, 나 재화야!” 그 당시 김영주 정보위원장이 가입을 도와 주었고 도산학 부위원장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홈피 6주년 기념파티가 있었다.

2009년 8월 2일!

우리 7기에선 8명이 참석하고 총 참석자는 53명이었다.

제고 정보위원회에서도 축하금 30만원을 보내주었고, 대표단이 참석했다; 용상욱 선배님, 윤용범 선배님, 권오인 선배님, 윤용혁님, 14윤석만 회장님 등이었다. 또 제고 길영희 사업회에서는 꽃다발을 보내주셨다.

당시 나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옛날에 올림포스호텔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던 기념으로 남편과 함께 기념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따듯하고 사랑에 넘친 시간이었던지... 참석했던 사람만이 알리라.

허회숙, 유명숙 명예회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윤용혁님의 인일 총동창회와 홈페이지 발전을 위한 축사가 지금도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그 이후로 나는 홈페이지에서 선배님, 후배님, 친구들과 글을 나누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회의도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나는 거의 8년을 홈페이지와 더불어 지냈다.

그 사이에 함께 했던 남편도 보내고, 아끼던 강아지 유리도 내 곁을 떠났다. 아들은 대학원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조촐히 살아가고 있다.

음악 이야기, 시 이야기, 하루의 기뻐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행사,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조약돌처럼 모여서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특히 외국에 사는 선후배님들, 친구들의 참여도는 엄청나다. 60대의 화려한 전성기 시대를 누렸다. 선배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다.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셨고, 각 단체의 모임은 더하다.

7기 친구들도 꾸준히 활동을 했고 후배들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였다.

그간에 바뀌신 회장님도 몇 분 되신다.

음악회, 사진전, 수채화 전시회, 바자회, 여행, 교육..... 모든 모임에 전교가 함께 했다.

어떤 때는 전교가 같이 울고, 어떤 때는 전교가 함께 웃었다.

홈피에서 글을 쓰며 함께 동창회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늦깎이 인생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여 1년에 한번씩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장학위원회에 보내고 있다. 고마워서이다. 선생님들께도 과일값 정도를 처음 전해드리기 시작했다.

수영을 다시 시작했고 운전도 다시 시작했다.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대학시절에 성당에서 반주했던 성가를 다시 치는 영광도 갖게 되었다. 참으로 울고 싶은 날들도 많았고, 친구들의 글에서 위로도 많이 받았으며, 마음이 기쁨으로 꽉 찬 적도 있었다.

앞뜰에 국화꽃이 피기 시작한다. 장미가 피어있고 목백일홍이 한창이다.

이 세월 동안 얼마의 천둥과 비와 맑은 하늘과 먹구름이 함께 했는가?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며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 감동이 와서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소식이 멀지만, 모든 동창님들의 건강과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함교 홈페이지의 회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창회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보잘 것 없는 나를 글 속에서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다. 감사의 눈물이.... (끝)